

SEMINAR · 2026. 9. 3 (목) 13:00-17:45

AI Ready Data 2026

AI가 조직에서 동작하려면, 데이터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?

국가 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표준과 구현까지, 하루에 확인하는 AI Ready Data

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 (3층) · 사전등록 onoffmix.com/event/347396

답을 만드는 쪽, 답을 가진 쪽

AI는 답을 만들고, 조직의 운영 데이터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. 리드타임도 성격도 다릅니다.

	LLM	조직의 운영 데이터
답의 출처	학습된 지식	기록된 관측값
리드타임	수집 → 학습 → 배포	즉시
답의 성격	확률적 추론	재현 가능한 조회
답이 없을 때	그렇듯하게 만들어낸다	기록에 없음을 확인한다

추론해야 할 곳과 조회해야 할 곳을 구분하지 않으면, AI는 위험해집니다.

사라진 담당자

사람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. 데이터에 답이 없으면 에이전트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.

payment

id	bigint
amount	numeric
status	varchar
updated_at	timestamp

amount — 원화입니까, 달러입니까?

updated_at — 이 값은 언제 기준입니까?

status — 어떤 기준으로 확정된 상태입니까?

이 데이터를 이 목적에 써도 됩니까?

지금까지의 데이터 준비는 모두 ‘사람이 최종 해석자’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.

그 전제가 지금 깨졌습니다.

데이터와 에이전트의 계약

1·2층은 우리가 오래 다뤄온 문제입니다. 새롭게 드러난 3층, 그 3층이 계약의 내용입니다.

③ 판단할 수 있는가
의미 · 기준 · 제약 · 사용조건

새롭게 요구되는 층

② 믿을 수 있는가

품질 · 신선도 · 출처

오래 다뤄온 층

① 읽을 수 있는가

형식 · 구조 · 접근

오래 다뤄온 층

AI Ready Data 는 기계가 읽는 데이터를 넘어, 기계가 판단할 근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

사람이 빠진 자리에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. 그 계약이 오늘의 주제입니다.

SPEAKERS



이승현

AI 에이전트 시대의 공공 AX 그리고 데이터 전략



구름

현장에서 본 AI Ready 데이터의 조건



허홍수

데이터로 시작하는 AI-Ready Data



이승현

온톨로지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



박나연

AI Agent 시대, Graph는 어떻게 Context가 되는가



김장원

AI Ready Data: 데이터를 AI 활용 가능 상태로 만드는 표준 체계



이정윤

공공데이터로 검증하는 AI Ready Data 진단과 구축